



투표하는 유권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1일 오전 광주 북구 문정초등학교 대강당에 마련된 문흥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권형안 기자



홍도 주민들 배 타고 투표소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인 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2구 주민들이 투표소가 설치된 홍도1구로 이동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개표 과정 지켜보는 참관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시스

“아무진 일꾼 뽑아야” 광주시 유권자 투표 행렬

소중한 한 표 행사 유권자 발길 이어져...1·2차 투표 절차에 일부 혼선 겪기도

“일 하나 만큼은 아무지게 했으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광주 각 투표소에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지역 일꾼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서로 두 손 꼭 잡은 백발 노부부, 모자를 눌러 쓴 대학생, 산책 삼아 집을 나선 어머니와 딸,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 중절모에 말끔한 정장을 차려 입은 노인, 바쁜 출근길 짐을 낸 직장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았다.

광주 광산구 첨단2동 제10투표소가 차려진 첨단다목적체육센터를 찾은 유권자들은 이제는 익숙하다는 듯,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했다.

이후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와 신분

증 대조 확인 절차를 거쳤고, 각급 차치단체장·교육감 투표 용지를 건네 받아 기표소로 들어갔다.

등재 번호를 모르는 유권자들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70대 한 유권자는 지정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사무원 안내를 받고 인근 첨단2동 7투표소로 발길을 돌렸다.

시장·시교육감·구청장과 광역·기초의회 각급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등 최대 7명을 선출하는 만큼, 투표용지는 1·2차로 나눠 교부됐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 동선을 혼동해 절차를 투표사무원에게 거듭 물기도 했다.

여러 장의 투표 용지를 받아든 시민들은 행여 기표를 빠뜨리지는 않을까, 도장이 번지지 않을까 심사숙

고하는 모습이였다.

광산구청장·시의원(광산구 3선거구) 투표용지가 지급되지 않자 의아한 표정을 짓던 한 유권자는 ‘후보가 1명 썩만 출마해 투표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문흥1동 제1투표소인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투표 시작 10분 전부터 상당한 투표 행렬이 나선 시민들이 줄을 섰다.

이날 투표소에 가장 일찍 도착한 나상운(75)씨는 “출근길에 들렀다. 젊은이들도 노후 걱정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씨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며 “잘했는가 모르오”며 멋쩍게 웃자, 선거 사무원이 “잘 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두 차례로 나뉜 투표에 일부 유권

자는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문흥1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문정초등학교 강당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선거사무원에게 투표 인증 촬영 방법을 물었다.

“투표소 이름을 배경으로 하고 찍으시라”는 안내에 그는 곧장 뒤 돌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

어느 80대 노부부는 선거 사무원의 부축을 받아 10분 가량이 지난 후에야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남구 주월1동 제2투표소 장산초등학교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사무원의 질문에 시민들은 저마다 주머니에서 꾸깃한 메모지나 휴대전화 꺼내 등재번호를 말했다. 상당수는 등재 번호를 몰라 사무원 도움을 받아 선거인 명부를 거듭 확인했

다. 한 직장인은 “바빠도 투표는 해야지”라며 허겁지겁 투표소에 들어섰다. 투표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 급히 발걸음을 되돌리는 중년 남성도 눈에 띄었다.

투표소를 떠나는 시민들 표정도 각양각색이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일 잘했으면 좋겠네” 등 활기찬 듯 밝은 표정으로 떠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반면,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들도 있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성실한 동네 일꾼’을 뽑아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바랐다. 광산구민 박모(82)씨는 “지역을 위해 아무지게 일할 사람이 뽑혀야 한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운동·여가시설과 공원 녹지를 확보하고, 걸음이 느린 고령 보행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장애인들, 경사로 등 참정권 행사 불편에 ‘한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오전 광주 북구 서림초등학교 내 입동 제2투표소.

휠체어를 탄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소속 장애인들이 입구 계단의 양 옆으로 설치된 경사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홀로 오를 수 없는 각도의 경사로 탓에 오르기를 주저하는 눈치였다.

도움을 호소하는 듯한 표정으로 해당 경사로를 수 분 동안 바라봤지만 투표소 내 어느 누구도 이들을 보지 못하면서 결국 경사로 진입은 물거품이 됐다.

출구에 설치된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를 발견해 이용하려는 순간 투표소 관계자들이 황급히 나와 “입구가 아니냐”며 가로 막았다.

이날 광주장차연 회원들은 제8회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실태 파악에 나서 입동 제2투표소를 시작으로 지역 곳곳의 투표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조사한 20여 곳의 투표소와 사전 투표장 조사한 곳 등 총 54개 투표소 현장의 장애인 참정권 침해 실태를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배영준 광주장차연 활동가는 “대선 이후 지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방선거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표를 하는 만큼 행정당국과 정치권은 장애인들의 요구에 응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타고 투표소로...신안 작은섬 주민들도 ‘소중한 한표

선관위, 섬 주민들 원활한 투표 참여 위해 군 운영 유도선 등 임대해 지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인 1일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 유권자들도 선박 등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의 유권자는 3만5246명으로 투표소는 모두 50개소다. 유권자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 때보다 107명 늘었다. 이들 섬 중 지도읍 선도와 압해읍 고이도, 중도면 병풍도, 임자면 재

원도 등 15개 투표소는 본섬이 아닌 부속섬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이날 오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홍도 2구 주민들은 1구, 흑산면 장도 주민들은 본도, 상·중태도 주민들

은 하태도로 선박으로 이동해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는 작은 섬 주민들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위해 군이 운영하는 유도선 등을 임대해 지원하고 있다.

신안지역 투표함은 가거도와 태도·만제도, 흑산과 홍도·비금·도초도는 쾌속선을 임차해 수송하고, 하의·신의·장산도는 철부선을 이용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도 경비

함정 20척을 투입해 관내 61개 섬 지역 투표함 128개를 육지로 수송·호송했다. 경비함정 19척은 선거가 끝나면 민·관 수송선이 60개 섬 지역의 투표함 127개를 수송할 때 인근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나머지 1개 섬(어정도) 지역의 투표함 1개는 서해해경청 소속 군산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 1척이 직접 수송했다. /신안북평래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